요즘은 간편식품이 '대세'

'나홀로족' 늘며 도시락·즉석식품 매출 10~30% 급증

편의점 신제품 출시 박차

원룸에서 생활하는 직장인 박모(36)씨는 요즘 빠른 귀가 후 저녁을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는 일이 많아졌다. 예전과는 달리 맛도 좋은데다 영양도 높은 상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 퇴근 후 긴 밤, 출출하고 혼자 식당을 가기가 애매할 때면 가까운 편의점에서 간식거리를 사먹는 경우도 잦아졌다.

1일 편의점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나홀로 족'이 많고 기온마저 떨어지면서 빨리 퇴근해 집에서 나오기를 꺼리는 이 들이 증가해 편의점을 중심으로 도식락과 간편식품 매출이 급증했다.

실제로 BGF리테일의 편의점 씨유(CU)는 전국의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지난 11일부터 2주간 매출을 직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냉장·냉동 즉석식 매출이 10~30%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따뜻한 국물의 냉장 면류 매출이 32.8% 상승했고, 국이나 수프류 판매도 18.2% 상승했다.

덮밥류도 27.1% 매출 상승을 기록했고, 떡볶이나 핫도그 등 냉장 즉석식 신장률도 21.7%에 달했다. 도시락도 직전 2주보다 매출이 16.6% 늘었다.

쌀쌀해진 날씨에 군것질거리를 찾는 수요가 늘어 간식류나 디저트 상품 매출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신제품 출시가 이어진 푸딩류 매출이 같은 기간 49.7% 증가했고, 미니 케이크(20.6%), 쿠키(19.2%), 초콜릿(15.5%), 떡(13.7%) 등도 두 자릿수 매출 신장을 기록했다.

이 같은 경향은 최근 즉석조리식품의 생산액 증가에 그대로 반영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 발간한 '가공식품 세분시장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를 최근 3년간 즉석조리식품의 생산액은 두 배가량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레토르트·냉동식품 등 즉석조리식품시장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환경변화로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종류별 소매시장 규모(2012년 기준)는 ▲가공밥 1612억6800만원 ▲기타 레토르트류 1047억5500만원 ▲카레류 379억2800만원 ▲죽류 363억1300만원 ▲국탕찌개류 322억5800만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편의점 업계에서는 이들의 취향에 맞는 도시락이나 간편식 개발과 신제품 출시에 공을 들이고 있다.

편의점 GS25는 정통 이탈리아 스파게티 맛을 구현한 스파게티 2종을 출시했으며 세븐일레븐도 최근 도시락 매출 증가세를 반영, '밥맛'을 높이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기온이 떨어지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가공식 매출이 늘고 있다"며 "도시락 외에도 밥, 면, 분식 등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간편식 범위도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국민연금으로 안전한 노후 준비 'OK'

저소득층은 보험료보다 급여 수익 더 많아 유리

평생보장·물가상승률 반영·유족연금 등 혜택도

가계빚 1000조, 노인 빈곤률 OECD회원국 가운데 1위 등 2013년 대한민국은 고령화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노령, 질병, 장애, 사망 등 사회적 위험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안전과 행복을 위협받을 수 있다. 미래에 대한 무관심이나 낙관, 당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저소득 계층의 경우 노후 준비는 더욱 어려운 일로 노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국민연금 가입이다. 국민연금은 젊고 근로 능력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내고 나이가 들어 급여를 받는 장기 사회보험이다. 단기간에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먼 미래에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전 세계 170여개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안전한 노후소득 보장제도다.

국민연금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2000만명 이상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고, 광주지역본부에서는 200여 만명이 가입해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은 ▲평생보장 ▲물가상승률 반영 ▲유족·장애연금이라는 부가적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이같은 혜택은 기업이 아닌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년 사망 전 까지 평생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 중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고, 가입자 또는 수급자 사망 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남겨진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매년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도 오른다. 오랜 기간 가입해야 하는 연금은 물가 상승이라는 위험에 항상 노출 돼 있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보장되는 국민연금으로 이러한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다.

이외에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하도록 설계 돼 있다. 저소득일수록 납부한 보험료 대신 연금 급여의 수익 비율이 높게 설정돼 있다. 하지만 이같은 혜택도 가입을 해야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중에는 아직도 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광주본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평생보장, 물가상승률 반영, 유족연금·장애연금이라는 부가 혜택을 통해 노후를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며 "기금이 소진되는데 대한 희혹이 있는데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다른 국가들처럼 부과방식으로 전환해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리무진 포토 이벤트 지난 30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1층에서 열린 9m짜리 파티 리무진 즉석 포토 이벤트 행사에서 한 여성고객이 신기한 듯 리무진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1일까지 열린 이벤트에는 선착순 하루 100명에게 리무진 서비스 20% 할인권을 증정했다. 〈광주신세계 제공〉

은행창구서 신분증 위·변조 즉석 조회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만들 때 신분증 위·변조 여부가 즉석에서 조회된다.

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내년에 일제히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각 지점 창구에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금융사기 등에 많이 쓰이는 대포통장(통장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통장)과 금융실명제 위반을 잡아내는 데 쓰인다.

통장개설 신청(예금거래 신청) 때 제시된 신분증을 창구의 스캐너로 찍으면 신분증 발급기관에 전달되고, 곧바로 위·변조 여부가 통보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발급일자만 확인한 탓에 다른 사람 신분증의 사진을 흐릿하게 만들어 가져오거나 생김새가 비슷한 사람의 사진으로 바꿔오면 위·변조를 알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육안으로 얼굴을 인식하기 어렵거나 쌍둥이처럼 닮아도 생김새의 고유한 특징을 잡아내 정확하게 비교하는 특허기술이 적용된다.

금감원과 은행들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대포통장 개설과 금융실명제 위반을 한층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통장 개설에 사용되는 신분증은 모두 조회 대상이다. /연합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연말 쇼핑시즌·배당투자 효과 등 기대감

지난주 코스피시장 거래대금은 일평균 4조원을 넘지 못하며 부진했지만 모처럼 증권사와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며 코스피지수는 2011년이후 장기박스권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2050포인트 돌파를 다시 한번 시도하며 마감했다. 7월 이후 상승장에서 주도주역할을 하던 자동차, 조선, 화학업종은 상승세가 잠시 주춤한 가운데 지난주 언급 한대로 주 후반 으로 갈수록 미국의 추수감사절 이후 시작되는 연말 소비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유통업과 IT관련주의 상승세가 돋보이는 한주였다.

12월을 시작하며 연말과 연초의 투자전략을 생각해보면 지난 주 우리증시 에서 IT와 유통업의 상승이 의미하듯 12월은 연말소비시즌이 이어지면서 산타랠리가 기대되는 달이다. 미국의 연말 소비시즌은 11월 넷째주에 있는 추수감사절부터 신년 연휴까지의 소비 성수기를 의미한다. 이 기간동안 소비가 연간 소비의 약 20%에 육박하였고 IT제품과 의류의 소비가 주를 이루지만 자동차등 고가품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부조사에서 올해 미국연말소비가 전년 보다 감소할 것을 예측하기도 하지만 주식시장 측면에서 볼 경우에는 미국 다우지수가 1만6000선을 넘어섰고 S&P500지수도 1800선을 넘기며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미국주가가 추세적 상승을 보일때 미국소비도 증가했던 것을 상기하면 연말 장세와 소비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과거 12월 코스피의 상승률을 봐도 코스피의 연말 성과는 긍정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번주 증시는 12월 17~18일 예정된 미국 FOMC회의에서 출구전략 결정에 중요한 지표인 고용지표가 이번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등 불확실성은 남아있고 12월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다음주 목요일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연말 쇼핑시즌에 대한 기대감과 글로벌 경기회복을 반영해 2011년이후 장기박스권 상단이 2050포인트 돌파를 시도하며 상승세가 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2월말은 대부분의 상장사가 배당을 실시하고 있어 배당투자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이다. 배당을 받기 위해 연말에 근접할수록 코스피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와 ETF에서 실적이 좋은 업종대표주를 중심으로 비차익프로그램 매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지수의 하방경직성은 더욱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정 계 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光銀 '새해맞이 환전·송금 고객사랑 이벤트'

2일~내년 2월28일까지

광주은행(은행장 김장학)은 2014년 말띠 해를 맞이해 2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새해맞이 환전·송금 고객사랑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기간 동안 환전, 해외송금, 여행자수표 구매, 외화수표 매입의뢰를 하는 모든 고객에게 금액에 관계없이 70%의 환율 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함께 미화 200달러 상당액 이상을 거래하는 고객 중 크리스마스 이브 등 특정일의 영업점 첫 외환거래 고객에게는 '행운의 2달러'를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또한 매 영업일 전 영업점 통합 10번째, 20번째, 30번째, 40번째, 50번째 200불 이상 외환고객에게는 1만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등, 총 1,055명의 고객에게 행운이 돌아간다.

염규봉 광주은행 기업영업전략부장은 "이번 행사는 2014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했다"면서, "가까운 광주은행 영업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한 외환거래를 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을 부탁 한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하이트진로 사장단 인사

김인규 사장, 영업총괄 겸직

김인규 사장

하이트진로는 29일 현재 관리총괄을 맡고 있는 김인규 사장이 영업총괄 업무도 겸직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영업·관리를 통합해 경영의 집중도를 높이고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인사라고 하이트진로 측은 설명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그룹의 미래 신사업 육성을 위한 역할 조정도 이뤄졌다. 강영재 하이트진로음료 대표가 그룹의 성장동력 발굴을 담당하는 '신사업개발센터' 총괄로 발령났고, 하이트진로음료 대표는 생산총괄을 맡은 손봉수 사장이 겸임한다.

지난 2011년 하이트맥주와 진로의 합병 이후 조직통합, 경영시스템통합 등 경영효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확보에 힘써온 하이트진로는 이번 인사를 통해 통합과정을 마무리 짓게 됐다.